

2. 미국 셰일오일 증산 배경 및 향후 전망

(조사국 국제종합팀)

1. 지난해 국제유가는 수 차례에 걸친 OPEC+의 감산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일쇼크 때와 달리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대규모 공급차질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유가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국 셰일오일 생산증가가 해당 충격을 상당부분 상쇄한 데에 크게 기인한다.

2. 최근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은 ①수요측면에서는 미국산 원유수요 증가, ②공급측면에서는 미완결유정¹⁾(DUC, Drilled but Uncompleted) 활용과 ③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²⁾에 기인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로지역의 미국산 원유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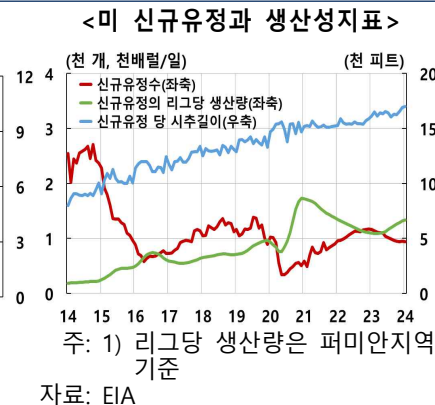
3. 향후 미국 셰일오일 증산추세는 ①고유가에 따른 생산유인, ②생산성 개선 지속, ③대규모 인수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에 힘입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셰일업체를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국 대형 석유업체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본비용 감소 및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생산량 증가에 긍정적³⁾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미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화석에너지 친화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미국내 원유생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단기적으로는 미완결유정 감소 및 시추 둔화, 대선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 등으로 셰일오일의 증산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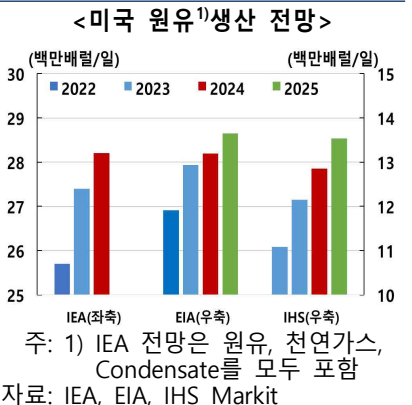
미국 석유수출 증가 지속



신규유정 수는 감소하였으나 유정당 생산성은 증대



미국 원유생산 증가세 지속 전망



1) 미완결유정(DUC)은 시추(Drilled)는 되었으나 경제성 등의 이유로 완결되지 않고(Uncompleted) 임시봉인된 유정을 의미한다.
2) 수평시추기법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유정당 생산성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시추부지 선정 등 탐사 및 생산 과정에서도 빅데이터,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예상된다.
3) 다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셰일업체가 대형화됨에 따라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복잡해지면서 유연한 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